김동철, '전기요금 현실화' 촉구

〈한국전력 사장〉

"대규모 전력망 재원 확보 필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공급 속도
한전 자체적 노력만으론 한계 판단
"산업용 인상은 최후의 수단 돼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전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의 자구노력과 재무구조 개선만으로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자단 현장간담회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보는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을 통해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한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누적 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김 사장은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데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을 통해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전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021~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왔다.

김 사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5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이행했으며, 올해도 당초 목표인 2조2000억원을 넘어 약 2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협의한 재무구조 개선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누적 적자 해소와 향후 전력망 투자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전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망 확충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는 됐음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산업용에 있어서의 누적 적자분은 거의 지금 해소가 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한전은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과 관련해 김 사장은 "내년 초 착공, 2028년 말까지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기후부와 광주광역시, 장성군, 광산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전력망 경과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중 송전선로 건설에 신공법을 도입해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변압기 조달은 변수로 꼽힌다. 김 사장은 세계적인 변압기 수요 증가로 조달에 약 3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국가전략산업의 전력 공급 시기를 맞추기 위해 전국 전력망 건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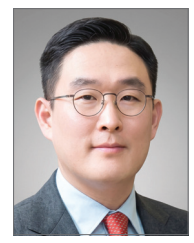
직류(DC) 배전망 구축과 AI 기반 가상 전력망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김 사장은 "직류 기반의 전력망을 계속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표준을 구축해가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구본규, LS전선 부회장 승진

LS그룹 2027년도 임원 인사

CEO 대부분 유지… 조직안정 무게
구본권 부사장, LS엠트론 COO 발탁



LS그룹이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사장(사진)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2027년도 임원 인사를 5일 단행했다. 전력 인프라 호황 속에 LS전선이 거둔 최대 실적을 반영한 인사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오너가 3세 경영인의 그룹 내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 자리를 지켰고 신규 이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선임됐다.

LS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27년도 정기 임원 인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올해 인사는 조직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직 변화를 최소화하고 전력 사업 호황에 따른 실적 경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 부회장의 승진이다. 그룹의 실적 경신을 이끈 LS전선의 성과가 인정을 받은 것이다. 구 부회장은 2022년 LS전선 대표이사에 오른 뒤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 등 주요 자회사의 성장을 주도했고 사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역대 최대 실적과 수주 성과를 거뒀다.

LS전선에서는 김형원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사장은 에너지 사업을 이끌며 글로벌 수주 확대와 해저케이블 사업 성장을 견인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으로 에너지경영총괄과 안전경영총괄을 함께 맡는다.

LS는 신규 이사 선임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명으로 늘리며 세대교체에도 나섰다. 배터리소재, 영구자석, 발전 등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끄는 책임자들도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실적 호조 속에서 미래 사업을 이끌 인재를 전면에 배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부 인재 영입도 이뤄졌다. 재정경제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거친 최원진 씨가 ㈜LS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합류한다. 최 본부장은 자본시장 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정책과 동향에 선제 대응하고 그룹의 미래 사업 점검과 재무 전략 강화를 맡을 예정이다.

또 다른 오너가 3세인 구본권 부사장은 LS MnM에서 LS엠트론으로 자리를 옮겨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는다. 그룹은 구 부사장이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등 LS엠트론의 경영 안정성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1면 '美 선거 후폭풍…'서 계속

산업별 전망 엇갈려
자동차 ↑ 반도체 ↓

◆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속·빅테크 투자 제동 관측

산업별 전망은 엇갈린다. 의회를 장악한 미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 및 삭감을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빅테크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1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해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에 큰 압박을 가해왔다.

신재생에너지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전망은 밝은 반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업권은 민주당의 빅테크 규제 기조라는 변수를 맞딱뜨렸다.

앞서 미 민주당은 AI의 급격한 도입에 제동을 걸거나 데이터센터 건설을 규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HBM) 수요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상승에 기여한 만큼, AI 영역에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되면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AI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공급난 장기화
삼성전기 '증설'·LG이노텍 '고부가' 대응

국내 부품업계 글로벌 시장공략 속도

인공지능(AI)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수요가 늘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기는 기존 고객사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LG이노텍은 AI 가속기와 서버용 고부가 기판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등 각기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AI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공급난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부품업계도 생산능력 확대와 고부가 제품 양산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인텔은 첨단 패키징용 기판 부족으로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 공급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서 기판과 메모리 등 주요 부품의 공급난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기판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 부품업계에도 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미 공급 중인 AI 서버와 네트워크용 FC-BGA의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세종사업장과 베트남법인에 총 6조7800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사업장에 4조27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9월 양산을 시작하고 베트남법인에는 2조5100억원을 투자해 2030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삼성전기는 지난 10월 21일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패키지기판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양사는 세종·부산 사업장에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기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엔비디아는 일본 이비덴과 대만 유니마이크론과 함께 삼성전기를 주요 패키지기판 파트너사로 언급했다.

LG이노텍은 기존 PC CPU용 기판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AI 가속기용 FC-BGA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2027년 양산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AI 서버용 고다층·대면적 기판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0㎜를 넘는 AI 가속기용 FC-BGA를 공개했다.

고객사 확보와 추가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지난 6월 주요 고객사 2곳과 장기공급계약(LTA) 및 추가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애플, 폴더블폰 신제품 성과 엇갈려

삼성전자, 'Z폴드8' 판매 증가세
애플, '아이폰 듀오' 신뢰도 하락



갤럭시 Z 폴드8. /삼성전자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출시 초기 화면 파손 논란에 휩싸이면서 삼성전자와의 폴더블폰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 내구성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구매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8의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며 폴더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5일 IT 전문매체 안드로이드 오소리티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공개된 아이폰 듀오 관련 온라인 투표에서 응답자의 약 40%가 출시 초기 화면 파손 사례로 제품에 대한 구매 신뢰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약 30%는 애초에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차세대 제품에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약 13%였다. 해당 조사는 매체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온라인 투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23일 아이폰 듀오 출시 직후 시작됐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품을 구매한 지 몇 시간 만에 내부 화면 중앙에 검은 선이나 색상 띠가 나타났다는 사례가 올라왔다. 전자기기 수리 전문업체 아이픽스잇은 힌지 중앙부의 화면 지지 구조가 파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10월 26일 일부 아이폰 듀오에서 내부 디스플레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체 지원 방침을 밝혔다. 아이폰 듀오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 기준 329만원부터 시작하며, 미국에서 보증 대상이 아닌 내부 화면 수리 비용은 999달러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2019년 첫 폴더블폰을 선보인 이후 8세대에 걸쳐 힌지 구조와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개선해 왔다.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Z8 시리즈는 국내 사전판매에서 144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 이후에도 갤럭시 Z 폴드8의 국내 판매량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 출시 이후 일주일간 갤럭시 Z 폴드8의 국내 판매량은 직전 일주일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양사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22%로 1위를 차지했다. 애플은 매출 점유율 50%로 1위를 기록했다. 양사 모두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첫 폴더블폰 출시를 계기로 양사의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 폴더블폰 시장에서 축적한 제품 개발 경험을 앞세우고 있으며 애플은 초기 품질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차현정 기자